

옛 그림 속 茶 이야기

22 오수도

고요함 속에 소쇄하게 들려오는 찻물 소리

따뜻한 오후, 초옥 안에 처사(處士)는 포갑(包甲) 한 서책에 기대어 단잠에 빠져들었다. 조금 전까지 만 해도 산거독서에 여념 없던 그는 처마 안까지 밀려들어온 오후 햇살에 몸과 마음이 어느새 아득해졌다. 가끔씩 붉은 머리의 단정학(丹頂鶴)이 오르내리며 길게 울고 찻물 끓는 소리가 소쇄(瀟灑)하게 들려오는 뿐 주위는 고요했다. 자연의 때 묻지 않은 고요함이 마음에 들어와 하나가 되는 순간, 처사의 잠은 오히려 깊은 명상에 가까워 것이다. 자연과 물이 일체 되는 순간이야말로 몸과 마음이 가장 자유롭고 평온해지는 때이니 긴 세월 수많은 문사들은 산거(山居)를 꿈꿨다.

이재관(李在寬, 1783~1837)은 '오수도(午睡圖)'에서 인물과 자연의 조화를 염두에 두고 경들과 대상을 포지시킨 개성적인 구도를 보여준다. 처사가 누운 자세와 같은 방향으로 그림의 구도가 사선을 이룬 점에 보면 마루와 처마는 물론이고 좌우의 배치된 소나무와 바위 또한 그 끝이 사선으로 연결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이재관이 자연합일 된 처사의 모습을 훌륭히 표현한 점이며 동시에 시각적으로도 안정감을 주는 부분이다.

비바람을 가리지 않고 맑음이 의연한 소나무와 바위는 군자의 상징물로 처사의 얼굴 표현과는 달리 호방한 필치로 그려졌다. 몇 번의 붓질로 속도감과 함축미를 드러내고 다시 진한 먹으로 윤곽선을 강조해 농담 대비의 효과를 주니 전체적으로 평온한 주제 안에서도 활발한 기운이 느껴진다. 소나무와 바위 아래에는 다시 학과 동자가 서로 조용하고 있다. 학의 울음소리와 날개 짓에 주인이 깰까 놀란 것인지 동자가 뒤돌아보고 있는 모습이다. 동자의 시선이 학을 향하는 순간 두 경들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게 됐다. 그림의 동적인 요소인 이 경들을 통해 산중에 처한 처사의 즐거움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맑은 차 한 잔을 마시고 곁에 세워둔 거문고를 연주하니 그 가락에 맞춰 춤을 추는 학의 모습이 떠오른다. 초옥 너머의 빈 여백을 상상으로 채우듯 그림 속의 동적인 상징물은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이야기를 상상하게 만든다.

그러나 간결하게 표현된 동자의 모습에서도 특이 얼굴만큼은 섬세한 붓질을 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다양한 화폭 중에서도 초상화에 뛰어났던 이재관의 이력을 반영한 것이라 여겨진다. 이재관은 19세기에 전문적인 직업화가의 길을 걸었던 인물로 사실 그의 생애에 관해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그러나 인물화에 뛰어난 정실 궁정화원이 아닌에도 불구하고 태조의 어진(御眞, 임금의 초상화)을 베껴 그린 공으로 벼슬까지 얻었고 추사 김정희(金正喜, 1786~1856)의 소개로 문인사대부의 초상화를 여러 점 남기고 있다. 김정희의 문하에 있던 조희룡(趙熙龍, 1789~1866)과는 또한 평생의 지기로 교류했는



이재관 '오수도', 조선 19세기, 수묵담채, 122.0x56.0cm,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데 그의 문집에는 이재관이 초상화에 능했을 뿐 아니라 화조화를 잘 그려 일본인이 매년 부산을 찾았을 그의 그림을 구입했다는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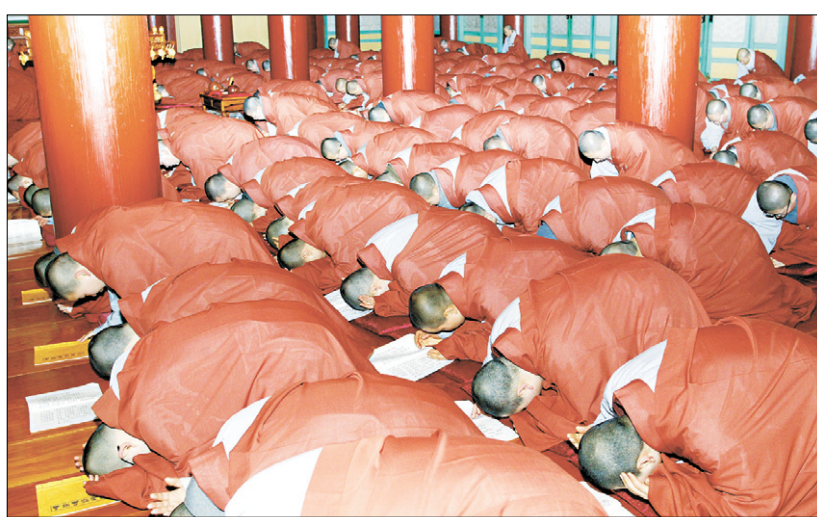
이처럼 19세기 조선 문예의 중심에 있던 김정희와 조희룡과의 관계를 통해 이재관은 문인화의 전통을 충실히 학습했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화경을 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더불어 김정희와 조희룡은 조의 선사(草衣禪師, 1786~1866)와의 교류를 통해 차를 애호하던 북학파 문사들로 이들과 교류했던 이재관 역시 차 문화를 향유했을 가능성이 높아진지 그림에 등장하는 다동(茶童)의 표현 역시 예사로 보이지는 않는다.

결과적으로 탁 트인 구도와 격조 있는 필치, 담청과 담황으로 맑게 채색된 '오수도'는 19세기 토착화된 문인화풍을 대변하기에 충분하며 뛰어난 차 그림으로도 손색이 없는 작품으로 여겨진다.

이랑 lang312@hanmail.net 동아아시아문화연구소 연구원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건이야기

19 운문사 새벽예불



겨울이었다. 새벽은 차가웠고 도량은 어둠 속에 있었다. 어둠을 깨우는 것이 햇살만은 아니었다. 도량석 목탁소리가 어둠을 깨우고 어둠을 지나온 푸른 눈빛들이 그 어둠을 깨웠다. 북소리, 종소리, 운판소리, 목어소리가 시방삼계에 깃들여 밥을 전했고, 새벽을 기다렸던 제자들은 부처님 전에 모여 있었다. 모여 앉은 눈빛이 아득한 시절의 영혼을 불러오고 차갑던 불상의 눈은 따뜻해졌다. '자심귀명례' 누구의 소리인지 알 수 없는 지극한 목탁소리가 서로의 깃가를 울리고, 이내 탐처럼 쌓인 예불소리가 법당을 가득 채웠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책에서, 저자는 "운문사가 보존하고 하고 있는 최고의 문화 유산은 새벽예불이다"며, 법당을 가득 채웠던 예불소리와 목탁소리는 장중한 '음악'이었다고 그 때의 감흥을 적고 있다. 아직도 도량은 어둠 속에 있고 새벽은 차가웠지만 법당 문살너머에서 들려오는 그 음악 소리는 따뜻했다.

옛 판화의 세계

두 왕이 법을 묻다 이왕문법(二王問法)

<석씨원류>에 등장하는 이 삽화는 당나라 때 조주 스님이 연나라 왕과 조나라 왕에게 법문을 내리는 장면을 판각한 작품이다. 종심 스님의 호는 조주, 시호는 진제, 법명은 종심, 속성은 학씨이다. 778년 산동 임지현에서 태어나 송산 소림사에서 구족계를 받았다. 남전산의 남전보원(南泉普願, 748~835) 문하에 입문해 법을 이었다. 80세 때부터 조주성(趙州城) 동쪽 관음원에 머물러 호를 조주라 했다. 검소한 생활을 하고 시주를 권하는 일이 없어 고불(古佛)이라는 칭송을 들었다. 897년 120세로 입적했으며, 제자들에게 사리를 줌지 말 것을 유언으로 남겼다. 조주 선사 사담들로부터 존중을 받게 된 것은 100세가 넘어서의 일이며 조나라 왕인 왕용과 연나라 왕인 유인공이 전법을 시작하려다가 스스로 멈추고 조주 스님의 설법을 청하여 들은 것이 그 시작이었다고 한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조주 스님은 왕을 보고도 단정하게 앉아 일어나지 않자 연나라 왕이 물었다. '사람의 왕이 존귀합니까? 법의 왕이 존귀합니까?' '사람 가운데 있게 되면 사람들의 왕이 존귀하고, 법 가운데 있게 되면 법왕이 존귀합니다.' 이에 연 왕이 승복할 따름이었다. 왕들이 설법을 청하자 조주 스님이 말했다. '세존께서는 한번 명호만 칭명해도 죄가 소멸되고 복이 생깁니다. 그런데 대왕들의 선조들께서는 어떤 삶이 그 이름에 접해 입만 때는 사람이 있거만 해도 골진



고판화박물관 소장 <석씨원류(釋氏源流)> 중 '이왕문법(二王問法)', 불암사판 1673년간행, 반곽(半郭) 27.2x18.0cm

노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나 조주는 이에 자비로 설법하는 것입니다.' 두 왕이 크게 기뻐하며 물러갔다. 다음날 연왕의 선봉장이 임금을 업신여긴 예를 문책하고자 방문하자 조주 스님은 문밖에 나가 그를 영접했다. '어제는 두 임금을 보고도 일어나지 않더니 오늘은 나를 보고 문 밖까지 나오시

시가 있는 도량

우주가 한 살 더 늙었다

하늘은 새 옷으로 갈아입고도
한 세월 흘러가는 것 못내 아쉬워
눈치도 없이 주룩주룩 눈물을 흘린다

누가 겨울비라고 무시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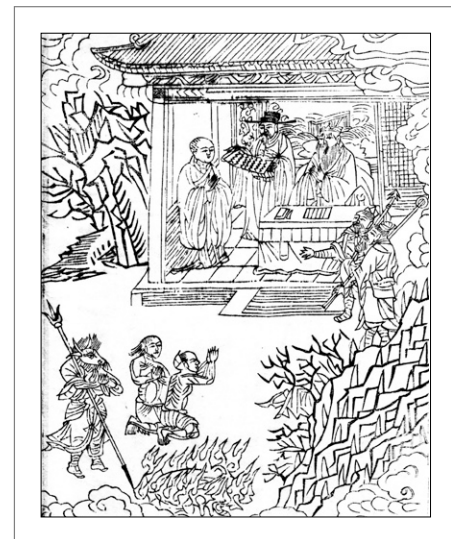
새벽잠 떨치고
창가에 얼비치는 주름살 몇 개
그 틈새를 비집고
무덤덤하게 흘러 나오느
캘린더용
새해
아직 펼쳐지 않은

발걸음이 무겁다
비에 젖는 이승의 새해

우주가 한 살 더 늙었다
-윤범모, <노을氏, 안녕!>에서

니 무슨 까닭이십니까?' '장군이 대왕과 같이될 때까지 기다리시오. 그렇게 되면 이 노승은 역시 문 밖에 나가서 영접하지 않을 것이오.' 선봉장은 부끄러워하면서 그곳을 떠났다.' 이 본문은 '7살 먹은 아이라도 나보다 나은 자라면 내가 물을 것이요, 80먹은 노인이라도 나보다 못한 이라면 내가 가르치리라'고 늘 강조하신 조주 스님의 말씀이 새삼 느껴지는 대목이다.

선학 스님(명주사 고판화박물관 관장)



#알림 위의 도판이 767호에 게재되어야 할 내용이기에 바로잡습니다.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선문염송 15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 선문염송 15권 출간! 양산, 향엄, 임계 선사의 주옥같은 공안을 한 권도 빠짐없이 펴내고, 송하여 공안 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전강 대선사 법어집 달다

원문을 새길 수 있도록 직역한 초발심자경문

매월 첫째 일요일 서울 정맥선원 선거귀암 법문 02-3494-0122
매월 둘째 일요일 국제 정맥선원 영원현실 / 선문염송 031-531-8805
매월 셋째 일요일 광주 정맥선원 영원현실 / 선문염송 062-944-4088
매월 넷째 일요일 부산 정맥선원 빈아심경 법문 051-503-6460

02-3494-2460 www.zenparadise.com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대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중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원인종 요가마을

민속죽염 21년전통
효상의 열과 온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킵니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분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30,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5,000원

2번 구분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기본 배송비 2,50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 3만원 이상 구매시 사품용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돌고래 슈퍼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 1호!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 포교당, 수련원, 교육시설, 복지시설,
호텔, 모텔, 펜션, 가든 등에 설치 최적함

사찰 · 포교당 · 불교시설 상담 대원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 · 시공
뛰어난 내구성, 30년 이상 반 영구적.

♣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해봉 -

돌고래 슈퍼 에너지텍

공급원 :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194번지 / 사무실 : 02)471-2356
상담전화 : 1688-334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